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인생은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2주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다 함께
-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요 중심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에 골몰하느라, 정작 중요한 나의 근본과 정체성은 잊은 채 지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만드셨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날이 무척 추워졌습니다. 차가운 공기 아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 바람 부는 데서 일해야 하는 이들, 냉골에서 몸을 움크리고 잠을 청해야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피 주십시오. 이들의 몸과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 사 43:18~19 ..... 인도자
- ▲ 교 독 문 ..... 20. 시33편 ..... 다 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 장원호 장로
- 2부 응 답 송 ..... 찬양대
- 2부 찬 양 ..... 420. 너 성결키 위해 ..... 다 함께
- ▲ 성경봉독 ..... 살전 4:7~12 ... 1부: 인도자/2부: 황현성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 I. 순중 ..... 마중물찬양대  
 II. 기대 ..... 청파찬양대

말 씀 ..... 그리스도인의 품격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 함께

2부 찬 양 ..... 218.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부르십  
 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택하십시오. 일상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품위 있게 사십시오. 나그네를 따뜻  
 하게 대접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진정한 사람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웃들을  
 살뜰히 돌보며, 나그네를 성심껏 대접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리스  
 도의 고결한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  
 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구역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설날 가정 예배 순서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때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 인 도 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 용 한 기 도 ..... 시 147:1-3 ..... 다 함 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찬 송 ..... 3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 함 께

교 독 ..... 94. 새해(2) ..... 다 함 께

기 도 ..... 가족 중

성 경 봉 독 ..... 왕상 2:1-4 ..... 인 도 자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  
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  
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말 씬 .....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 가족 중

찬 송 .....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 다 함 께

주 님 의 기 도 ..... 다 함 께

<함께 나눌 말씀>

##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설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어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매년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의 흐름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다사다난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설이 이전에 맞이했던 날들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날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날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변함없이 감싸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장 서두의 말씀은 다윗의 왕위가 아들 솔로몬에게 옮겨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위 계승 절차 가운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다른 모든 전달 사항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 준수와 이를 따를 때 오는 복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2-4).”*

이러한 다윗의 약속과 권고는 다윗 집안의 역사를 큰 흐름 가운데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받았던 응원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시작점에 있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에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게 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미 여러 기준을 세우며 살아왔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기준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었다면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게 너무 많은 기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면, 반대로 내게 있는 기준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 그냥 풀처럼

김종희

요즈음 매일 오후 두 시가 되면  
나는 홍은동에 있는 작은 산을 오른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잠시 접어두고  
몸이 원하는 일만 할 뿐이다  
먹는 일 잠자는 일 노는 일도 있지만  
몸을 햇볕에 내놓아 별을 쏘여주고  
눈에는 푸른 하늘 파란 나무를 보여준다  
몸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직 생명이니  
그 원을 들어주려고 나는 홀로  
이 적막한 산을 오르고 내린다  
그냥 풀이 바람에 나부끼듯이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혜경 곽정자 구명자 구재원 구혜린 권혁순 박혜경b 김나름 김도윤 김연정 김영미  
 김영순 김용규 송명 김용진 박효선 김용찬 전이린 김윤수 박상호 김인순 김정훈  
 이진영a 김지현b 김현정 김혜라 김희진 박홍재 박기영 박재영 박지혜 방문성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서원금 서혜원 송남필 신기호 신영옥 안현호 안현호 유경주 유명호  
 지성진 유성애 윤성종 김윤정 윤정득 이국노 김민화 이나라 이미휘 이민관 송용화  
 이순용 김신실 이왕준 송상경 이재문 이정우 장윤지 이행진 이현정 이현죽 임광호  
 정성훈 정영례 정종삼 정현모 조병주 조소영 조영훈 주은경 채계진 최소라 고인성  
 최숙 최윤희 최은미 최재욱 이수정 최현 최형경 노진래 최형경 노진래 하현일  
 한기택 장혜정 한성건 정지혜 허정호 허호범 홍복선 황현주 이윤기 무명1

## 감사헌금

권성연 김영빈 김영희 김옥곤 김일재 김태정 나영란 노신후 박성준 박지선 박해숙  
 방종미 백성래 변승호 유성애 서담이 김정완 서미정 서한이 신형선 유명호 지성진  
 유수진 이상도 이재삼 전정현 이정우 장윤지 이학순 차은호 한희석 홍소형 황현주  
 이윤기 무명1

## 생일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운 백혜숙

## 녹색꿈헌금

안준용 이진희

##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월·월)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 교회소식

1. 구역회 : 구역회가 오늘 오후 1:30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참석 대상자는 필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 참여가 어려운 분은 위임장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선교회 모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2. 설날 예배 순서지 : 설날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예배 순서지를 주보 안에 넣었습니다. 참고하여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내려 받는 법 :
  - 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또는 ID/PW)로 로그인 (홈택스에 회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② 로그인 후연말정산'이미지를 클릭
  - ③ 간소화자료조회 메뉴의바로가기'버튼을 클릭
  - ④ 귀속연도가 2019년인 것 확인하고'기부금 돋보기'버튼을 클릭
  - ⑤ 하단에 조회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할 항목을 체크한 후'PDF다운로드'클릭해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인쇄하기'버튼을 클릭해서 출력
4. 교회생활 안내 :

교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예배 중에 휴대폰은 진동모드로 설정해 주시기나 전원을 꺼주세요.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시 공간이 협소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1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신 28:9-14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안홍숙	장병준	이범석
1월	1부 영접위원	권미정	헌금위원	곽권희	
	2부 영접위원	박범희 임주빈	이국노 박미영 최현욱	김신실	
	2부 헌금위원	박홍재 박기영			
식당봉사	오늘	정현주 이수정 이수자 최영미 이나라 김현정 안종일 최병민			
	다음주	없음 (설 연휴)			
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오늘)	없음 (설 연휴) (다음주)	커피봉사	3남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